https://doi.org/10.5392/JKCA.2017.17.08.130

윌리엄즈의 '감정구조' 개념과 계급에 대한 제(諸) 개념들의 검토: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위한 이론적 틀 고찰

Williams' "Structure of Feeling" and Theories on the Working Class: Examination of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 "Class-Oriented" Labor Movement in Contemporary Japan

정유정
동경대학교 정보학환·학제정보학부

You-Jung Jung(youjung.jung@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B'지역노조라는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그 이론적 틀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현재 일본에서 '계급지향적'인 노동운동은 주변에서 '잔여적인' 노동운동으로 설정되지만, 그럼에도 그 활동은 활발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그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살펴보았다. 먼저 윌리엄즈에 의한 개념의 변화를 검토하고,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계급의식 개념과 '언어적 전회'의 새로운 주체 개념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B'지역노조의 사례에 맞게 '감정구조' 개념을 재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B'지역노조의 '집단적 노동자'와 '개인화된 노동자', '노동자'와 '비노동자'가 물질적 공간 혹은 비물질적 공간에서 집단화를 이룬다고 보았고, 그 '감정구조'는 '"계급지향성"을 둘러싼 모순과 절충'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감정구조'의 모형을 제시했다.

■ 중심어 : | 현대 일본 | 노동운동 | '계급지향성' | '감정구조' | 레이먼드 윌리엄즈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B" local union, which conducts "class-oriented" labor movements in contemporary Japan. "Class-oriented" labor movements are active, while they have been residual on the margins of Japanese society and the country's labor movement situation. This research examin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class-oriented" labor movements and investigates Williams' "structure of feeling." First, the "structure of feeling" concept is examined. Second, the study compares several theories on the working class of Marxism and alternative subjects of "linguistic turn." Third, this study redefines the "structure of feeling" in terms of the case of "B" local union. The results show that "collective workers-individualize workers" and "workers-non-workers" of "B" local union establish their own labor movements on the material or immaterial space and consider their "structure of feeling" as the "negotiation and contradiction on the class-orientation." Consequently, this study offers a model of their "structure of feeling."

■ keyword : | Contemporary Japan | Labor Movements | "Class-Orientation" | "Structure of Feeling" | Raymond Williams |

접수일자 : 2017년 07월 10일
수정일자 : 2017년 08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8월 03일
교신저자 : 정유정, e-mail : youjung.jung@gmail.com

I. 서 론

서구와 일본사회를 중심으로, '산업사회-노동자계급 투쟁'에서 '복지국가-코포라티즘적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으로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노동자계급은 그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게 된다.

일본의 경우,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고도경제성장을 거치면서 '1억 총중류사회(一億總中流社會)'로 불리는 방대한 중산계급(혹은 중류의식)이 성장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풍요로운 중산계급은 붕괴되어갔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한 '격차사회(格差社會)'가 도래하였다. 한편으로 1950년대에 주요 산업에서 좌파계 계급투쟁노선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회사와 격렬한 쟁의를 벌이다가 패배했다. 결국 이는 우파계 기업협조노선의 노동조합들이 지배적 지위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다. 1980년대에 좌파계 내셔널센터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하, 총평)는 해체되며, 보다 더 우파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연맹)가 성립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전반에 걸쳐 1950년대와 1980년대를 기점으로 계급투쟁노선의 노동운동은 점차적으로 주변화되어 갔다. 대신 기업협조노선의 노동조합이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다른 한편으로 1980년대 이후 신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한 사회운동적 유니오니즘이 새로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대기업 기업협조노선의 노동운동에 대한 노사관계론이 주류의 노동운동 연구가 되어갔고, 1980년대 이후에는 사회운동적 유니오니즘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끌었다[1-3]. 따라서 현재의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계급투쟁노선의 노동운동은 주변화되어 갔다.

이와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 일본에서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적대 개념에 기반을 둔,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이 일본 사회 주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고찰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검토하는 학문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이란, 계급투쟁노선의 연장선에 있으나 마르크스적인 대자적 계급 그 자체는 아니며, 다만 계급 개념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이라고 정의한다. 'B'지역노조는 1968년에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계급적대 개념에 기반을 둔 '같은 노동자'라는 개념을 중심축으로 노동운동을 형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본문에서 '계급지향성'을 주체의 능동성으로 설명하기 위해,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 개념을 검토하고,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개념과 '언어적 전회'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참조하여, 'B'지역노조라는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사례에 맞추어 '감정구조' 개념을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B'지역노조라는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필자는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 개념을 검토하는데, 그가 문화를 '지배적인 것(the dominant)', '잔여적인 것(the residual)', '부상하는 것(the emergent)'으로 분류하고 '감정구조'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는 것을 참고한다. 즉 필자가 조사해온 일본의 'A'대기업노조를 '지배적인 것'으로, 'B'지역노조를 '잔여적인 것'으로, 'C'여성유니온을 '부상하는 것'에 대입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각각의 운동이 형성되는 과정을 '감정구조'라는 개념을 재해석하여 사용한다[4]. 특히 필자는 '지배적인' 'A'대기업노조를 '기업지향적' 노동운동으로, '잔여적인' 'B'지역노조를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으로, '부상하는' 'C'여성유니온을 '젠더지향적'인 노동운동으로 각각 정리한다. 그러면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사회·일본노동사회의 역사 속에서 '계급지향적'인 'B'지역노조를 잔여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그 이론적 틀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B'지역노조에 대한 사례연구가 아니며, 차후의 실증적 연구를 선행하여, 그 이론적 틀을 검토하는 연구이기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A'대기업노조와 'C'여성유니온의 연구도

차후에 실증적 연구로 정리될 것임을 앞서 밝힌다.

이에 선행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급과 새로운 주체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여러 이론들을 검토하여 'B'지역노조의 '감정구조' 개념을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우선 윌리엄즈의 '감정구조' 개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현대적 계급 개념과 일본의 계급론과 계급투쟁노선의 노동운동을 검토한다. 그 후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적 전회'와 그에 해당하는 대안적인 주체론을 참조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연구들을 참고하여, 'B'지역노조에 맞게 '감정구조' 개념을 재해석하고,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위한 이론적 틀을 검토한다. 이 글의 논의 전개 과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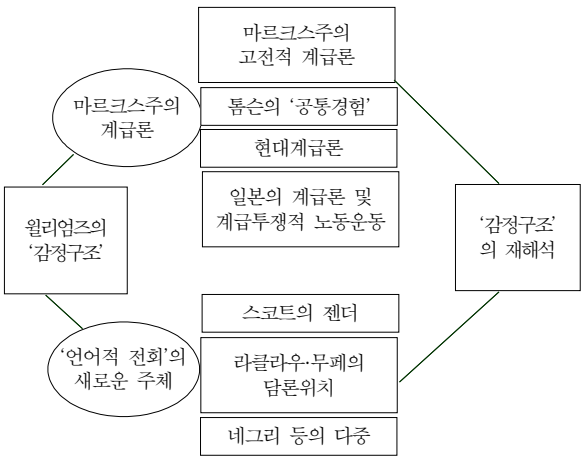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논의 전개 과정

III. 윌리엄즈의 '감정구조' 개념 검토

윌리엄즈는 영국의 문예비평의 전통과 마르크스주의의 관계에서 문화개념과 '감정구조' 개념을 재정의해왔다.『영화의 서문』(1954),『문화와 사회』(1958), 『기나긴 혁명』(1961), 『마르크스주의와 문학』(1977) 등의 일련의 저작에서 윌리엄즈의문화와 '감정구조' 개념의 의미는 변화해왔다.

윌리엄즈의 '감정구조' 개념은 『영화의 서문』에 처음 사용되었으나, 『문화와 사회』를 거쳐 『기나긴 혁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문화와 사회』에서 윌리엄즈는 도덕적·지적인 제 활동, 인간성의 완성의 예술의 문화개념을 옹호한다. 그리고 그는 특정 계급이 아닌 공동사회와 공동문화를 강조하며, 마르크스주의의 문화이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윌리엄즈는 특정 계급이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그 특정 계급의 문화가 전체 문화의 공동선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체적 생활양식(the whole way of life)'으로서의 문화개념을 채택한다[5] . 그러면서 그는 칼라일의 '동시대적 감정'이나 1840년대의 소설을 검토할 때, 감정·'감정구조'라는 표현을 언급했을 뿐이다[6].

그와 달리 『기나긴 혁명』에서 윌리엄즈는 '감정구조'를 명확한 구조가 있는 한 시대의 문화라고 규정한다[7]. 그리고 그는 새로운 세대는 독자적인 생활방식이 있어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감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기나긴 혁명』에서 '감정구조'는 반드시 공동사회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공동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개념이다. 또한 윌리엄즈는 프롬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감정구조'를 정리한다. 그는 이를 귀족계급의 사회적 성격, 중산계급의 사회적 성격,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성격으로 나눈다. 그러면서 윌리엄즈는 '감정구조'는 지배적인 사회적 성격과 중첩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단일한 것이 아니며, 상호작용을 하고 복합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요시미에 따르면, 『기나긴 혁명』에서의 '감정구조'는 '프롬의 사회적 성격이나 베네딕트의 문화의 패턴이라는 개념이, 일정한 사회나 문화에서 구조화된 고정의 형식을 보려고 하는 것과 달리, (감정구조는) 오히려 동일한 문화적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와 모순에 가득찬 실제의 경험의 기초에 성립되어가는 공통의 요소'이다[8]. 또한 엄묘섭에 따르면, 윌리엄즈의 '감정구조'는 '사회관계와 감정 경험의 범위에 따라 유형화된 애매하고 포착하기 어려운 감정들'이며, '감정구조'는 '사회적 성격처럼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지는 않지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폭넓고 심도 깊은 의사소통이 그것에 의해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감정적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감정구조는 사회적 차이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도 시대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또는 세대에 따라서도 차이를 드러'낸다[9]. 즉 '감정구조'는 이와 같이 공동체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한편으로『기나긴 혁명』을 발표한 이후 톰슨은 윌리엄즈의 문화개념을 비판하고, 윌리엄즈는 그 비판을 수용하여 다시 한번 문화와 '감정구조' 개념을 수정한다. 우선 톰슨은 존재와 경험(비문화와 문화)를 구별하여, 산업사회(존재)와 노동자계급의 경험(문화)을 논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윌리엄즈는 비문화와 문화를 구분하기 보다는 그 양자를 전체성(wholeness)으로 감싸서, '전체적 생활양식'(the whole way of life)을 문화라고 논한다. 톰슨은 이러한 윌리엄즈의 문화개념에 대해서, 그로 인해 계급투쟁이나 사회적 갈등이 애매해진다고 비판한다[10]. 그러나 이후 윌리엄즈는 톰슨의 비판에 대해서 당시의 영국에서처럼 사회적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을 톰슨의 '총체적 투쟁(the whole way of struggle)'의 문화개념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11].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지만, 윌리엄즈는 일련의 저작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왔다.

『마르크스주의와 문학』에서 윌리엄즈는 톰슨의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는 헤게모니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문화를 '삶 전체(whole lives)'인 '사회의 전과정(whole social process)'으로 정의하여, 이를 '지배적인 문화', '잔여적인 문화', '부상하는 문화'로 구분한다[12]. 이 개념에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되는 특정계급의 이해와 이데올로기가 포함된다.

또한 그는 '지배적인 문화', '잔여적인 문화', '부상하는 문화'에 시간적 구분을 넣는다. '잔여적인 문화'는 과거에서 온 사회·문화적 제도나 형성물의 잔여이지만, 현재의 문화과정에 활동하고 현재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부상하는 문화'는 새로운 의미체계·가치관·관행 등을 가리키며 현재에 창조되는 지배문화에 대립적인 문화를 의미하며, 19세기의 노동자계급의 형성이 이에 해당한다. 윌리엄즈에 따르면 '부상하는 문화'의 원천은 노동자계급과 배제된 사회적 영역(인간적 영역)이다[13]. 그에 따르면, '감정구조'는 사회적·고정적·명시적인 것이 아닌, 현재적·동적·개인적인 애매한 것이며, 다른 사회적 형성물과 다른, 용해되는 형체의 사회적 경험이라고 정의된다[14]. 그리고 이러한 '감정구조'는 우선적으로 '부상하는 문화'에 관계된다. 한편으로 『기나긴 혁명』에서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와 문학』에서도 '감정구조'는 하나의 문화적 가설이며, 한 세대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경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도된 개념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15].

윌리엄즈의 '감정구조'라는 개념은 그것을 통해서 노동운동에서 '지배적인 것', '잔여하는 것', '부상하는 것'의 헤게모니적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 계급 이외의 영역으로도 '부상하는 것'을 그려낼 수 있다는 점, 공동체의 차이를 그려낼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어 매력적인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개념의 정의는 윌리엄즈 본인에 의해 계속 변화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과 '언어적 전회'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참조하여, 'B'지역노조라는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의 사례에 맞추어 이 개념을 재해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Ⅳ. 구(旧)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과 신(新) '언어적 전회'의 대안적인 주체론 검토

1.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

1.1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과 계급의식

본 연구에서는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위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기 위해여, 우선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에 대한 제(諸) 개념을 살펴본다. 우선 이전에도 계급이란 용어는 있었지만, 이를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분열과 대립으로, 즉 근대적 의미의 계급 개념으로 정착시킨 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이다[16].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적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자 사이의 계급적대 관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마르크스는 대중을 '자각한 계급'으로 만들어야 하고, 모든 생산수단 중에서 최대의 생산적 파워는, 혁명적 계급 그 자체이라고 하며 혁명

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17]. 한편 레닌은 '부르주아지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려는 노동조합주의의 자생적 지향에서 노동운동을 끌어내어 그것을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혁명활동이 직업인 사람'의 역할을 강조한다[18].

루카치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양자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승리란 종래의 계급들의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주어진 계급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 대신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각' 혹은 '자기지양'을 강조한다[19]. 그리고 루카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급의식은 단순히 프롤레타리아들의 개개인의 심리학적 의식상태가 아닌, 변증법적 분열을 내적으로 극복함으로써 '계급의 역사적 상황의 뜻이 의식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20].

마르크스·엥겔스, 레닌, 루카치의 기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을 검토해 보면, 노동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으로서 역사적 숙명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투쟁이 아닌 혁명적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변증법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자각' 또는 '자기지양'의 과정을 거쳐 즉자적 계급이 아닌 대자적 계급으로 자신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은 단순히 개인적 심리상태가 아닌 계급의식이라는 역사적 의식을 내재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엥겔스, 레닌, 루카치의 '자기지양적' 계급과 계급의식 개념을,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살펴보는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대 일본에서의 산업변화와 노동의 이질성의 증가 등으로 '계급지향적인' 'B'지역노조의 사람들은 더 이상 혁명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노조는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적대 개념에 기반을 둔 '계급지향성', 다시 말해 '같은 노동자'라는 개념을 노조의 중심축으로 하므로,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계급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2 톰슨의 계급형성과 '공통경험'

한편으로 톰슨은 『영국 노동자계급의 형성』(1963)에서, 계급과 계급의식이 경제적 제 조건으로 결정된다는 기존 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자, '경험'이라는 문화적인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다. 톰슨은 계급을 구조나 범주가 아닌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계급 개념이란 '공통된 경험의 결과 자신들 사이에는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다른(대개 상반되는) 타인들과 대립되는 동일한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나타난다'며, 계급은 단순히 경제적 제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밝힌다[21]. 톰슨은 계급의식도 '이러한 경험들이 문화적 맥락에서(in cultural terms) 조정되는 방식, 즉 전통, 가치체계, 관념, 그리고 여러 제도적 형태 등으로 구체화되는 방식'이라고 논한다[22].

이렇게 톰슨이 토대와 상부구조 등의 용어가 아닌, '경험'과 같은 문화적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결정론에 의한 수동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닌, 계급과 계급의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능동성에 주목하기 위해서 이다. 톰슨이 책 제목을 '형성(making)'이라고 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 책은 '진행중인 어떤 과정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인데, 진행중인 과정은 여건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그 활동의 주체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노동계급은 정해진 어느 시간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정해진 어떤 시간에 떠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계급 자신이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고 말하며, 경제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역사를 만드는 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주체들의 능동성을 강조한다[21].

또한 이런 영국 문화연구의 시초가 되는 톰슨의 계급형성과 '공통경험'이라는 개념은 윌리엄즈의 '감정구조'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사상적 전통인 경험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은 기본적으로 같은 경험영역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톰슨의 '공통경험' 개념에 영향을 받아, 윌리엄즈의 '감정구조' 개념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르크스·엥겔스, 레닌, 루카치의 계급·계급의식과는 다른 '계급지향성'과 '감정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3 브레이버맨·풀란찬스·라이트 등의 현대계급론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은 그 후 포디즘과 신중간계급의 대두, 포스트포디즘과 다중 등 자본주의

와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흔들리게 된다. 필자는 본 연구가 본격적으로 계급론을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가 아니므로,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계급 개념과는 다른 현대의 계급론을 여기에 모두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는 고전적 계급론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현대계급론의 대표적 논자로 거론되는 브레이버맨과 풀란차스, 라이트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브레이버맨에 따르면, 테일러주의의 분업에 의해, 노동자들은 이전의 부분적인 통제력을 잃게 되고, 탈숙련화, 즉 '노동의 쇠퇴(degradation of work)'가 초래되었다[23]. 그러나 브레이버맨은 노동자계급은 '신중간계급', 생산적 노동, 비생산적 노동 등으로 단순히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연속적 고용집단'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다[24]. 이렇게 브레이버맨은 노동의 분업화가 노동자계급의 동질화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고든 등 다른 현대의 연구자들은 이와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분절화를 논하고 있다[25].

풀란차스는 '신쁘띠부르조아지'라는 새로운 계급 개념을 논의하는데, 그는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경제·정치·이데올로기라는 세 가지 영역의 결정요인들이 계급의 지위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풀란차스는 '전통적 쁘띠부르조아지와 신쁘띠부르조아지는 그들이 부르조아지에도 노동계급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배제는 '이런 집단의 구조적 계급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계'도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말한다[26].

한편 풀란차스의 이러한 접근은 라이트의 비판을 받았다. 라이트는 '경제적 기준에 기반을 둔 서로 다른 계급에 위치한 사회분업내의 두 지위들은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서로 상이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27].

결국 브레이버맨의 탈숙련화를 통한 동질화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 유사한 논의가 된다. 그와 달리 풀란차스와 라이트는 노동자계급의 파편화를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위치들의 파편화로 상정하는 것처럼 보인다[28]. 이렇듯 차이가 있지만, 이들의 신중간계급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19세기 말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만을 부여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시대적 변화를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적대 개념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러한 자본주의 양식과 노동자계급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1.4 일본의 계급론 및 계급투쟁적 노동운동

한편으로 일본의 경우, 19세기 말까지 일본은 농업국가였으나, 이후 공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1897년에 일본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다[29][30]. 고든에 따르면, 일본의 메이지시대 노동운동은 1897년부터 1900년까지가 피크였고, 1900년의 기점으로 '자신들을 단일한 노동자계급으로 의식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하층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층이 형성되어 있었다[31]. 한편으로 일본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고 그에 따른 사회운동이 형성되어 갔는데, 코아먀에 따르면, '메이지(明治, 1868-1912)시기부터 다이쇼오(大正, 1912-1926)시기까지는 아직 마르크스주의의 이식단계'이고, 노동운동이 '독립된 정치운동으로 진전하기 시작한 다이쇼오 말기부터를 비로소 마르크즈주의가 일본적으로 구체화된 시기, 즉 "일본 마르크스주의"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32].

이러한 전전(戰前) 일본에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존재했는가는 일본의 마르크스주의를 둘러싼 논쟁적 화두이고, 필자가 이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세야마에 따르면,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의 압도적 다수가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 전제로 하고, "무산계급"의 역사적 사명이나 정치적 동향을 언급하는, 학술연구라기 보다는 실천적 정치 팜프렛에 가까운 것이었다.'라는 점에서 당시 경향을 알 수 있다[33]. 다만 요코야마 겐노스케(横山源之助)에 의한『일본의 하층사회(日本之下層社會)』(1899)과 일본농상무성에 의한『직공사정(職工事情)』(1903) 등 소수이긴 하나, 하층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루어졌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은 정부에 의해 해체당하고 파시즘적

인 보국(報國)단체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쳤다. 패전 이후, GHQ(연합국최고사령부)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전후개혁'이라고 불리는 재벌해체·농지개혁·교육개혁·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이루어지고, 노동조합 결성이 합법화되면서 그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후 GHQ의 공산주의계열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색출·추방(레드퍼지 red purge)이 있었고, 한편으로 좌파계열 노동조합은 기업 측과의 쟁의에서 패배해갔다. 그러면서 1950년대를 기점으로 민간대기업에서 계급투쟁노선의 노동운동은 기업협조노선으로 선회해 갔다.

이러한 격렬했던 쟁의 이후,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누리며, 화이트칼라층이 증가하고, 1960-70년대에 중간계급이 대두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오다카 쿠니오(尾高邦夫)의 『일본의중간계급(日本の中間階級)』(1961)이 출간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는 SSM 조사라는 사회계층·사회이동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75년 조사에서는 전국민의 76%가 자신을 '중'이라고 생각하는 방대한 '중'의식층('中'意識層)이 출현하고, 1977년에는 '중류논쟁' 혹은 '중간층논쟁'이 일어났다[34]. 중류의식을 중간계급 그자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점이 있으나, 일본 사회에서 '1억 총중류사회'의 평등신화가 나타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신화는 다치바나키 토시아키(橘木俊詔)의 『일본의 경제격차(日本の経済格差)』(1998)와 사토 토시키(佐藤俊樹)의 『불평등사회 일본(不平等社會日本)』(2000) 등을 통해 그 균열이 지적된다[35].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배경으로, 1985년의 파견법제정 등 일련의 노동유연화 법제정·개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등의 비보장 노동자가 증가하였다. 현재의 일본은 '격차사회'라고 불린다.

한편으로 계급투쟁노선의 노동운동은 1950년대 패배 이후, 총평산하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1989년에 연맹의 체제로 이행되면서, 계급투쟁노선의 노동운동은 일본 사회의 중심에서 사라진 듯이 보인다. 대신 대기업 기업협조노선의 노동운동과 1980년대 이후 대두된 사회운동적 유니오니즘의 이분법적 대립이 현저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필자는 이러한 현대 일본의 주변에서 계급투쟁노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계급적대 개념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이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B'지역노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B'지역노조와 같은 노동운동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계급형성과 계급투쟁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마르크스주의적인 고전적 계급 개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그 이후의 신중간계급론에 중심을 두는 현대계급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1억 총중류사회'에서 '격차사회'로 이행한 일본 사회에서, 비록 주변에 있지만 존재하고 있는 'B'지역노조와 같은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론적 틀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언어적 전회'와 대안적인 주체론

시대적으로 테일러주의(혹은 포디즘)과 신중간계급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시대에 이러한 신중간계급의 성장을 배경으로, 구미와 일본을 중심으로 신사회운동이 폭넓게 전개되었다. 그러면서 노동자계급은 이전에 가졌던 사회운동의 중심적 권위를 내려놓게 된다. 또한 이후 신자유주의(혹은 포스트포디즘) 하에서 이러한 신중간계급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중 등 또 다른 새로운 주체 문제도 화두가 되었다. 이렇게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만으로는 현대적 사회운동의 주체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스트구조주의 및 '언어적 전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주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검토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모색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논의된 '언어적 전회'와 새로운 주체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1 스코트: 젠더라는 언어

우선 스코트의 『젠더와 역사정치학』(1988)은 제2물결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1980년대 여성사 연구의 산물이다. 이 저작에서 스코트는 포스트구조주의 입장에서 기존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톰슨에 대해 평가와 비판을 동시에 행한다. 즉 스코트는 톰슨에 의해서 계급, 그 자체는 비판

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녀는 변함없이 여성은 노동자계급의 역사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일반적(남성의) 경험 속에 특수한 예로 어색하게 편입되어 있거나, 혹은 완전히 별개로 취급된다고 말한다[36].

스코트는 이러한 남성 중심적 역사학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그러나 그녀는 한편으로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편적' 남성으로부터 벗어나 여성 스스로를 특수한 존재로 위치시키는 페미니즘의 역설을 초래할 것을 걱정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스코트는 젠더라는 '언어'와 포스트구조주의를 여성사의 새로운 무기로 제시한다.

우선 스코트에 따르면, '젠더란, 육체적 차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知)'로 정의되고, 노동자계급에 젠더라는 '언어'를 부여한다[37]. 또한 스코트는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담론분석을 사용하여, 보편적 계급·계급의식 개념과는 다른 '젠더와 같은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혹은 정당화되는가'를 묻는다[38]. 즉 '어떻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원이 아닌 과정에 대해서, 단일성이 아닌 다수의 원인에 대해서, 이데올로기나 의식이 아닌 수사나 담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38].

더욱이 스코트는 이후 '경험'(1992)이라는 논문에서 '경험'이라는 영역과 그와 대조적인 비본질적이며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언어'라는 영역을 대조한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다원적 주체인 젠더를 논하기 위해, 스코트는 '언어적 전회'를 선택했다[39]. 이와 같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나 톰슨의 개념은 페미니즘 같은 당대의 새로운 조류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고, 이를 둘러싸고 본질주의적 경험과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언어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이 진행되었다.

2.2 라클라우·무페: 담론과 주체위치

라클라우와 무페는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1985)에서 스코트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신사회운동의 대두를 지적하지만,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논의를 재독해해서 포스트구조주의 이론과 접합시킨다.

특히 라클라우와 무페는 '주체(subject)'라는 카테고리를 언제나 담론 구조 내에서의 '주체 위치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라며 스코트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전회'를 선택한다[40]. 단 라클라우와 무페에 따르면, 주체 위치는 담론 안에 위치하지만, 물질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첫째, 담론의 물질적 성격은 정초하는 주체의 경험 또는 의식 속에서 통일될 수 없다. 반대로, 다양한 주체 위치들이 담론 구성체 내에 분산된 채 나타나게 된다. 둘째, 차이들의 체계의 고정화/탈구로서의 접합적 실천은 순수하게 언어적인 현상들로 구성될 수 없다[41].'계속해서 그들은 '모든 객관성의 한계에 대한 이런 "경험"은 정확한 담론적 현존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적대이다.'고 논한다[42]. 즉 라클라우와 무페는 데리다와 라캉을 이용해 결정 불가능성이 결절점을 통해 헤게모니적 접합을 한다고 말한 것처럼, 포스트구조주의 개념과 '언어적 전회'를 차용하지만, 최종적 봉합의 불가능성인 경험의 적대개념을 제시한다[43].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한계점에서 '경험'과 '언어'를 끌어들인다.

다시 말해 라클라우와 무페는 주체위치를 담론 내부에 위치시켜서, 데카르트적인 투명한 주체론이나 앞서 논의한 마르크스나 톰슨적인 노동자계급이라는 단일한 주체론을 넘어서 고정적이거나 항상적인 것을 거부한다. 즉 그들은 다양한 주체들이 담론 구성체에서 분산된 채 나타나고 있음을, 그 한계점에서의 모순적인 상황을 드러내며, 주장한다.

2.3 하트·네그리와 다른 이탈리아 이론가들의 '경제의 언어적 전회': 비물질노동과 다중

마라찌(C. Marazzi)의 『양말의 장소: 경제의 언어적 전회와 그 정치적 귀결』(1994)은 우리말로는『자본과 정동: 언어경제의 정치학』이라고 번역되었다. 그는 포스트포디즘 하에서 '노동은 고도로 소통적이며, 생산적이기 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언어적" 능력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책 제목에서 시사하고 있듯이 '자본주의의 언어적 전회' 혹은 '경제의 언어적 전회'를 선언한다[44]. 또한 '대공업의 발전에 대해 현실적인 부의 창조가, 직접적인 노동시간의 양에 의존하여, "사회적 두뇌의 일반적 생산력의 축적"으로서 "일반적 지성"에

의존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이용하여, 마라찌가 오늘날 '일반적 지성은 일찍이 공장 내에 설치된 고정자본으로서의 기계 속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벽을 넘어 사회전체에 퍼지고, 대도시라는 사회화된 공장 내에 협동하는 노동력의 살아있는 신체로 전위'되어가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일반적 지성' 혹은 '대중지성' 개념에 접근하는 것이 포스트산업자본주의의 중심원리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미즈시마(水嶋)는 설명한다[45][46]. 비르노(P. Virno)와 랏짜라토(M. Lazzarato)도 '일반지성' '대중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생산과 재생산을 포함한 비물질노동의 논의를 전개한다[47-50].

하트와 네그리는 『제국』(2000)과 『다중』(2004)에서 언어적 노동과 정동노동을 비물질노동으로 거론한다. 다만 마라찌와 비르노, 랏짜라토 등의 논의는 정동보다는 언어에 치우쳐져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어쨌든 하트와 네그리는 비물질노동 이외에 빈자(貧者)도 '사회적 생산의 과정들에 점점 더 포함되는 만큼, 그들은 모든 전통적인 노동하는 계급들과 더불어 공통적인 조건에 참여하는 계층이 되어가고' 있으며 다중의 일부가 된다고 논한다[51]. 비물질노동과 빈자라는 용어로 하트와 네그리의 계급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서 드러나듯이, 그들 역시 스코트와 라클라우·무페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다만 하트와 네그리는 마르크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가 이미 단일한 자본의 계급과 대면한 단일한 노동의 계급에 의해 특징지어졌다는 경험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단일한 노동의 계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한다[52]. 그리고 하트와 네그리는 앞서서 다른 이탈리아 이론가들의 언급을 이용하여, 오늘날은 커뮤니케이션이나 언어가 공통의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비물질노동의 행위자와 빈자들 역시 언어를 통해 혁명적 주체인 다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53].

여기서는 스코트, 라클라우·무페, 마라찌·비르노·랏짜라토·하트·네그리 등의 논의를 검토하였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계급의식에 비판적이며, 특히나 스코트는 톰슨을 평가하나 동시에 비판적이다. 이미 말했듯이 이는 계급 혹은 새로운 주체에 대한 논의가 통일성(혹은 단일성)과 복수성(혹은 다원성) 간의 이항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논쟁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드러낸다. 차이와 다원적 적대를 강조하며 이들은 '언어적 전회'를 선택하였고, 계급으로서의 단일성이 아닌, 젠더라는 언어, 담론 속에 분산된 주체위치, 빈자와 비물질노동을 포함하는 다중, 등으로 다양한 접근을 하여 새로운 주체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전회'는 차이와 새로움에 주목하고 있으며,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치있다. 하지만 현 시대의 'B'지역노조와 같은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은 이러한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시대변화를 통해 다원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한 이들의 논의들은 새로움에 주목하고, 이론적이거나 담론분석적이기 때문에, 이 논의들만으로는 현재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란한 이론보다는 기존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계급의식을 비판해서 '경험'영역에 주목했던 톰슨으로 돌아가서, 윌리엄즈의 '감정구조' 개념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V. '경험'으로의 회귀: '감정구조'개념 재해석

앞서 말했듯이 윌리엄즈의 '감정구조'는 애매한 경험이며, 노동자계급 이외에도 사회 전체에서 배제된 영역을 원천으로 하여 '부상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에서 말하는 여성과 인종 등 다양한 영역을 원천으로 하여 '부상하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구조' 개념은 스코트와 라클라우·무페, 네그리와 다른 이탈리아 사상가들이 말한 다원성, 즉 차이의 언어를 내재화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원성을 내재한 경험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톰슨이 '공통경험'을 제시했다면, 필자는 윌리엄즈의 '감정구조'를 차이를 내재한 '다양한 경험'으로 재해석하여 제시한다.

그러면서 윌리엄즈의 '감정구조'는 톰슨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영국 사상적 전통을 공유하여, 경험영역에 속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톰슨이 문화적 개념인 '경험'으로 계급의 형성을 논하고자 했던 이유와 '감정구조'를 연결시켜 보고자 한다. 즉 톰슨은 계급이 어떤 구조물이 아닌 능동적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경험'과 '형성(making)'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일본이라는 현실의 경험영역에서 'B'지역노조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능동적으로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형성하는 과정을 그려내기 위해 '다양한 경험'인 '감정구조'를 이론적 틀로 내세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계급지향성'은 계급적대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들의 '감정구조'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숙명적인 계급의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한 '감정구조'는 한 공동체 내의 다양한 경험, 차이를 드러내는데 유효한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윌리엄즈가 문화를 '지배적인 것', '잔여하는 것', '부상하는 것'으로 나눈 것을 이용하여, 'A'대기업 노조, 'B'지역노조, 'C'여성유니온을 각각에 대입하고, 'B'지역노조를 잔여하는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으로 상정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집단에서도 그 안에 '감정구조'가 있고,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인 잔여하는 'B'지역노조 내의 '감정구조'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B'지역노조 안에서 다양한 노동자들의 차이를 그려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그리 개념을 빌려서 변형시켜서 '감정구조'를 구체화할 수 있는 분석틀로 제시하고자 한다. 네그리는 『혁명의 만회』(1988)에서 '대중노동자(mass worker)-사회노동자(social worker)'라는 개념을 사용했으나, 이후에는 다른 이탈리아 이론가들에게 영향을 받아 '물질노동(material labor)-비물질노동(immaterial labor)'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대중노동자는 포드주의 하의 집단화된 노동자를 뜻하며, 사회노동자는 공장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넓혀진 노동력을 뜻하므로, 이 개념들은 노동자들의 집단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그에 반해 물질노동 및 비물질노동은 포스트포디즘 하에서의 생산물의 양식 차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본 연구와 후속의 사례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를 표현하면서도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인 'B'지역노조 행위자들의 집단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집단화된 노동자-개인화된 노동자', '노동자-비노동자', '물질적 공간-비물질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분석틀로써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틀로 다양한 주체들이 '계급지향성'을 둘러싸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발언하는지 등을 '감정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A'대기업의 기업별노조는 정규직노동자들 중심의 굉장히 공고한 '집단화된 노동자'들의 집단이다. 한편으로 'C'여성유니온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철저히 '개인화된 노동자'의 집단이다. 이와 달리 'B'지역노조의 노동자들은 중소기업 기업별노조와 개인가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B'지역노조 노동자들을 '집단화된 노동자-개인화된 노동자'라는 분석틀로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B'지역노조는 NPO인 노동상담센터와 병행된 형태이다. 이에 노동자와 임금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 NPO의 보란티어들이 같이 노동운동을 형성하는데,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노동자-비노동자'의 분석틀을 사용할 수 있겠다. 신중간계급이 성장하고, 경제적 풍요를 영위하게 되면서, NPO 등 시민사회운동이 성장하였으며, 오늘날 이것이 다시 노동운동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변화를 그려내기 위해, 필자는 '노동자-비노동자'라는 틀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B'지역노조 내의 물질노동을 하는 '집단화된 노동자'들은 공장 등 물질적으로 집합할 공간이 있지만, 개인가맹한 비정규직의 비물질노동을 하는 '개인화된 노동자'들은 따로 집합할 공간이 없으며, NPO의 인터넷블로그에 집합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물질적 공간-비물질적 공간'이라는 분석틀을 사용하면, 집단화와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인한 노동의 변화라는 양 측면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와 같이 'B'지역노조에서는 '집단화된 노동자-개인화된 노동자', '노동자-비노동자'들이 물질적 공간 혹은 비물질적 공간에서 집합하며, 서로 충돌하고 협조하면서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형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은 '"계급지향성"을 둘러싼 모순과 절충'의 '감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계급지향성”을 둘러싼 모순과 절충’에는 ‘B’ 지역노조 내부의 계급과 젠더의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기존 마르크스주의와 톰슨이 19세기 노동자 계급을 말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감정구조’ 개념으로, 현대 포스트포디즘 하에서 변화된 노동을 말하는 네그리 등의 물질노동 및 비물질노동 개념들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다시금 계급과 젠더라는 틀로 뒤집어서 재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정구조’ 개념은 단순히 ‘공통경험-차이의 언어’라는 이분법이 아닌, 현대 일본의 ‘격차사회’에서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의 ‘다양한 경험’을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윌리엄즈의 ‘감정구조’를 ‘B’지역노조에 대입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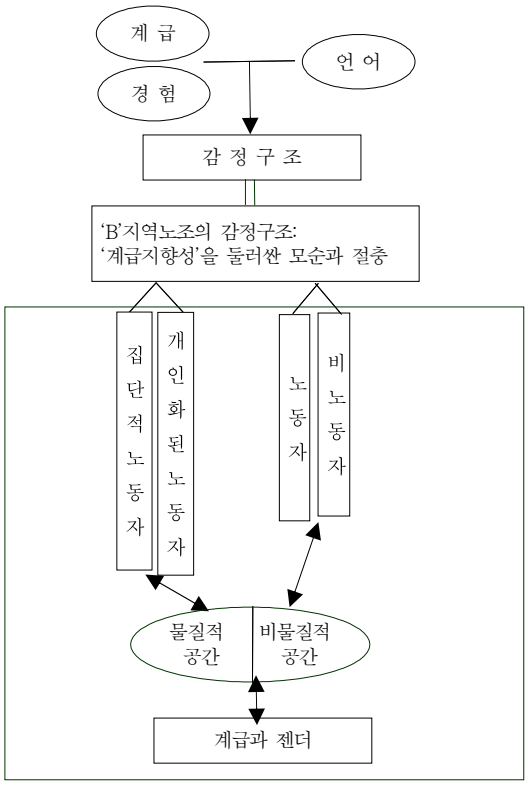

그림 2. ‘B’ 지역노조의 ‘감정구조’ 모형

참고로 ‘지배적인’ ‘기업지향’적 ‘A’대기업의 기업별노조는 1950년대 격렬했던 노동쟁의 이후 계급투쟁적 노동운동에서 기업협조적 노동운동으로 선회하였고, 반공의식이 투철하다. 이 ‘집단화된 노동자’들은 계급적대를 거부하며 기업협조적인 집단적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부상하는’ ‘젠더지향적인’ ‘C’여성유니온의 노동운동은 우울증에 걸린 비정규직 여성들이 노동쟁의를 통해, 멜랑콜리에서의 회복을 꾀하는 운동이다. 이 ‘개인화된 노동자’들은 멜랑콜리를 ‘감정구조’로 갖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B’지역노조라는 ‘잔여하는’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은 “‘계급지향성”을 둘러싼 모순과 절충’의 ‘감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지배적’인 ‘기업지향적’ 노동운동의 ‘감정구조’ 및 ‘부상하는’ ‘젠더지향적’인 노동운동의 ‘감정구조’와는 다른 독특한 ‘감정구조’이다.

VI.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검토한 작업이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 ‘계급지향적’인 노동운동은 주변에서 ‘잔여적인’ 노동운동으로 상정되나, 그럼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지역노조를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윌리엄즈의 문화와 ‘감정구조’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B’지역노조의 사례에 맞게 윌리엄즈의 ‘감정구조’를 재해석하기 위하여,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적 · 현대적 계급 개념과 ‘언어적 전회’의 새로운 주체 개념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B’지역노조의 사례를 바탕으로 ‘감정구조’를 재개념화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고전적 계급 개념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 즉 신자유주의 혹은 포스트포디즘의 현실에서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논의하는 작업이다. 즉 계급 개념은 오래된 개념이기에, 그것을 현대 일본의 노동운동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로 검토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인 시도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오히려 새로운 논의가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현대계급론도 언급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래된 계급 개념을 비판하며, ‘언어적 전회’로 향해 갔고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주체를 논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 반대로 ‘경험’으로 회귀했다. 본 연구에서는 윌리엄즈의 ‘감정구조’ 개념을 톰슨의 ‘공통경험’ 개념에 기반하여, 다원성을 내포한 ‘다양한 경험’으

로 재해석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톰슨의 오래된 계급과 '경험' 논의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개념화하였다. 즉 본 연구는 '계급지향성'을 논하면서, '계급-언어' 혹은 '경험-언어'의 이분법을 넘는 새로운 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새로운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탈리아 사상가들이 경제의 '언어적 전회'를 논했다면, 본 연구는 경제의 '문화적 전회'를 시도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경제·언어적 문제를 애매한 '경험'이라는 '감정구조'로 재개념화하여, 현대적 '계급지향성'을 문화연구로서 재해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담론분석이나 현란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다. 그 대신 본 연구는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경험적인 현실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이 되는 이론적 틀을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감정구조' 개념으로 영국의 문화연구를 현대 일본의 노동운동연구에 접목시켜, 그 이론적 틀을 고찰한 학문적으로 새로운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산업사회-노동자계급 투쟁'에서 '복지국가-코포라티즘적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으로 시대적인 이행이 있었다고 언급했는데, 그 이후의 다시 변화한 신자유주의(혹은 포스트포디즘)라는 현재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결과적으로, 현시대의 새로운 주체 중 하나로 검토하기 위해 그 선행연구로서 이론적 틀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다만 이미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B'지역노조를 현대 일본의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으로 보면서, 그 이론적 틀만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의 구성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 작업으로는 이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B'지역노조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배적인' '기업지향적인' 'A'대기업의 기업별노조와 '부상하는' '젠더지향적인' 'C'여성유니온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구조'라는 이론적 틀로, 현대 일본 노동운동에서 '지배하는 것', '잔여하는 것', '부상하는 것'의 노동운동을 고찰하는 이론적·실증적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노동운동의 관계를 계급과 젠더의 문제로 재해석하여, 스코트가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 역시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仁田道夫, *日本の勞働者參加*, 東京大學出版會, 1988.

[2] 上原愼一, "第1章 中小勞連から地域勞組へ: 札幌地域勞組の事例から," 遠藤公嗣(編), *個人加盟ユニオンと勞働NPO: 排除された勞働者の權利擁護*』, ミネルヴァ書房, pp.33-54, 2012.

[3] 小谷幸, *個人加盟ユニオンの社會學: <東京管理職ユニオン>と<女性ユニオン東京>(1993年-2002年)*, 御茶の水書房, 2013.

[4] 레이먼드 윌리엄즈,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역, 경문사, 2003.

[5] 레이먼드 윌리엄즈, *문화와 사회*, 나영균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317, 1988.

[6] 레이먼드 윌리엄즈, *문화와 사회*, 나영균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110-135, 1988.

[7] 레이먼드 윌리엄즈, *기나긴 혁명*,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7.

[8] 吉見俊哉, *メディア文化論: メディアを學ぶ人のための15話*, 有斐閣アルマ, p.94, 2004.

[9] 엄묘섭, "감정의 시대: 문화와 집합행동," 문화와 사회, 제6권, pp.28-29, 2009.

[10] E. P. Thompson, "The Long Revolution II," New Left Review, No.10, p.39, 1961.

[11] R. Williams, *Politics and Letters: Interviews with New Left Review*, New Left Book, pp.134-136, 1979.

[12] 레이먼드 윌리엄즈,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역, 경문사, p.155, 2003.

[13] 레이먼드 윌리엄즈,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역, 경문사, p.182, 2003.

[14] 레이먼드 윌리엄즈,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역, 경문사, pp.183-193, 2003.

[15] 레이먼드 윌리엄즈,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역, 경문사, p.191, 2003.

[16]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이진우 역, 책세상, p.16, 2006.
[17] 칼 맑스, "철학의 빈곤," *경제학·철학초고/超譯 자본론/공산당선언/철학의 빈곤*, 김문현 역, 동서문화사, p.504, 2012.
[18] 블라디미르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 최호정 역, 박종철출판사, p.142, 2003.
[19] 게오르크 루카치, *역사와 계급의식: 마르크스주의 변증법 연구*, 박정호, 조만영 역, 거름, p.162, 2005.
[20] 게오르크 루카치, *역사와 계급의식: 마르크스주의 변증법 연구*, 박정호, 조만영 역, 거름, pp.164-5, 2005.
[21] 에드워드 톰슨,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상)*, 나종일, 노서경, 김인중, 유재건, 김경, 한정숙 역, 창비, p.6, 2004.
[22] 에드워드 톰슨,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상)*, 나종일, 노서경, 김인중, 유재건, 김경, 한정숙 역, 창비, p.7, 2004.
[23] 해리 브레이버맨, *노동과 독점자본: 20세기에서의 노동의 쇠퇴*, 이한주, 강남훈 역, 까치, 1987.
[24] 해리 브레이버맨, *노동과 독점자본: 20세기에서의 노동의 쇠퇴*, 이한주, 강남훈 역, 까치, pp.347-361, 1987.
[25] 데이비드 고든, 리처드 에드워즈, 미카엘 라이크, *분절된 노동 분할된 노동자: 미국노동의 역사적 변형*, 고병웅 역, 신서원, 1998.
[26] 니코스 풀란차스, "제5장 현대 자본주의와 중간계급," 나델, 풀란차스 외, *사회계급론*, 박현우 역, 백산서당, pp.202-203, 1986.
[27] 에릭 라이트, *국가와 계급구조*, 김왕배, 박희 역, 화다, p.49, 1985.
[28]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샹탈 무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 민주주의 정치를 향하여*, 이승원 역, 후마니타스, p.163, 2013.
[29] A. Gordon, *日本勞使關係史 1853-2010*, 二村一夫譯, 岩波書店, p.19, 2013.
[30]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編), *日本の勞働組合100年*, 旬報社, p.8, 1999.
[31] A. Gordon, *日本勞使關係史 1853-2010*, 二村一夫譯, 岩波書店, pp.48-52, 2013.
[32] 코야마 히로타케 엮음, *일본 마르크스주의사 개설*, 한상구, 조경란 역, 이론과 실천, p.22, 1991.
[33] 盛山和夫, "変動する階層構造1945-1970 序論," 盛山和夫(編), *リーディングス 戰後日本の格差と不平等 第1卷 変動する階層構造 1945-1970*, 日本図書センター, p.4, 2008.
[34] 原純輔(編), *リーディングス 戰後日本の格差と不平等 第2卷 廣がる中流意識*, 日本図書センター, pp.8-10, 2008.
[35] 白波瀨佐和子(編), *リーディングス 戰後日本の格差と不平等 第3卷 ゆれる平等神話1986-2000*, 日本図書センター, pp.3-4, 2008.
[36] J. W. Scott,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p.84, 1999.
[37] J. W. Scott,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p.2, 1999.
[38] J. W. Scott,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p.4, 1999.
[39] J. W. Scott, "Experience," in J. Butler and J. W. Scott(eds),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Routledge, pp.33-38, 1992.
[40]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샹탈 무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 민주주의 정치를 향하여*, 이승원 역, 후마니타스, pp.210-211, 2013.
[41]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샹탈 무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 민주주의 정치를 향하여*, 이승원 역, 후마니타스, p.199, 2013.
[42]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샹탈 무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 민주주의 정치를 향하여*, 이승원 역, 후마니타스, p.223, 2013.
[43] 에르네스토 라클라우, 샹탈 무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 민주주의 정치를 향하여*, 이승원 역, 후마니타스, p.229, 2013.
[44] C. Marazzi, *現代経濟の大轉換: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仕事になるとき*, 多賀健太郎譯, 青土社, p.39, 2009.
[45] 칼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요강II*, 김호균 역, 그

린비, pp.367-391, 2007.
[46] C. Marazzi, *資本と言語: ニューエコノミーのサイクルと危機*, 柱本元彦譯, 人文書院, pp.178-9, 2010.
[47] 빠올로 비르노, "'일반지성'에 관하여," *비물질노동과 다중*, 조정환 역, 갈무리, pp.207-220, 2005.
[48] 빠올로 비르노, *다중*, 김상운 역, 갈무리, 2013.
[49] 마우리찌오 랏짜라또, "비물질노동," *비물질노동과 다중*, 조정환 역, 갈무리, pp.181-206, 2005.
[50] 마우리찌오 랏짜라또, 안토니오 네그리, "비물질노동과 주체성," *비물질노동과 다중*, 김상운 역, 갈무리, pp.287-307, 2005.
[51] 마이클 하트, 안토니오 네그리, *다중*, 조정환, 정남현, 서창현 역, 세종서적, p.168, 2008.
[52] 마이클 하트, 안토니오 네그리, *다중*, 조정환, 정남현, 서창현 역, 세종서적, pp.140-141, 2008.
[53] 마이클 하트, 안토니오 네그리, *다중*, 조정환, 정남현, 서창현 역, 세종서적, pp.192-194, 2008.

저 자 소 개

정 유 정(You-Jung Jung) 정회원

- 2002년 3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석사)
- 2005년 4월 : 동경대학교 정보학환·학제정보학부(연구생)
- 2006년 4월 ~ 현재 : 동경대학교 정보학환한·학제정보학부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문화연구, 일본 노동운동